

박재순 한나라 前최고 피습

10일 새벽 광주 풍암동 자택 침입 50대 도끼 휘둘러

박재순(66) 전(前)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습격을 당했다. 이 민원인은 '토지소송을 도와 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박 전 최고위원의 집에 윤모(56)씨가 침입, 박 전 최고위원의 이마와 머리 등에 3차례 손도끼를 휘둘렀다.

당시 박 전 최고위원은 아내(63)와 함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윤씨가 침입하면서 비춘 손전등 빛에 놀라 잠에서 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최고위원 부부는 아들 속에서 30분 가량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윤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최고위원의 아내는 괴한의 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윤씨가 쓴 가스총에 맞았다. 이 사이 박 전 최고위원은 윤씨의 손에 들려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윤씨를 거실로 밀어냈다.

이어 박 전 최고위원은 거실 소파 위로 윤씨를 넘어뜨린 뒤 양팔로 눌러 윤씨를 제압했으나, 머리가 3cm 가량 찢어지고 손과 다리 등에도 부상을 입었다. 박 전 최고위원의 아내 역시 몸싸움 도중 머리 등 4곳을 다쳐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의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윤씨는 이날 가스총과 드라이버, 시너, 흉기 등을 휴대한 채 밧줄을 이용해 베란다 문을 통해 박 전 최고위원의 집에 침입했다.

또 이날 범행을 위해 2주 전께 박 전 최고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10일 박재순(66)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병실로 옮겨지고 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윤모(56)씨로부터 습격을 당해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나문경기자 mjna@kwangju.co.kr

사건 답사했으며, 남구 주월동 철물점 등에서 범행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광주시 남구의 A목욕탕에서 구두닦이로 일한 윤씨는 목욕탕에서 알게 된 박 전 최고위원에게 집요하게 토지보상 민원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윤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보성 출신인 박 전 최고위원은 전남도 기획관리실장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수취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경찰이 압수한 손도끼 등 범행도구. /당수취기자 yang@kwangju.co.kr



경찰에 체포된 범인 윤씨. /당수취기자 yang@kwangju.co.kr

“땅 보상 뜻대로 안되자 앙심 품은 듯 도우려 했을 뿐 어떤 대가도 없었다”

■ 박씨가 전한 피습 상황

-윤씨와 어떤 관계인가

▲평소 자주 다니는 목욕탕에서 알게 된 구두닦이이다. 강진 군수로 재직할 적이 있는데 윤씨가 강진 출신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대해줬다.

-윤씨 습격 당시의 상황은

▲아내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도끼로 머리를 맞았고 일어나 보니 복면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아마도 도끼가 빗맞은 것 같다. “도둑이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씨가 왜 습격했다고 생각하는가

▲윤씨가 수차례 자신의 땅 보상을 도와 달라고 해 서류를 검토했으나 땅에 나무를 심어놓는 등 문제

가 있는 땅이어서 도울 수 없었다. 그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토지보상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도로공사 간부도 윤씨에게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윤씨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단지 인정상 윤씨를 도우려 했을 뿐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고, 요구한 적도 없다. 윤씨로부터 두 차례나 검찰에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몸상태는

▲도끼에 머리를 맞아 두 군데를 깨웠다. 또 격투 중 오른손을 물려 이빨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다.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아내도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당수취기자 yang@

목욕탕서 14년간 구두닦이 하다 안면

■ 범인 윤씨는 누구?

10일 박재순(66)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에게 흉기를 휘둘른 윤모씨는 광주시 남구의 A목욕탕에서 14년간 구두닦이로 일했다.

윤씨는 A목욕탕에서 박 전 최고위원을 알게 된 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최고위원은 한 달에 1번 정도 A목욕탕을 찾았으며, 윤씨는 박 전 최고위원을 볼때 마다 자신의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께 강진군 성전면 남해고속도로 성전인터체인지 공사 과정에서 도로공사 측이 자신 소

유의 땅 약 1322㎡(약 400평)에 대해 2000만원을 보상해준 데 불만을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월 1심에서 5900만원의 보상 판결이 나온데 이어 2심에서 1억9500만원으로 보상금이 결정되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께 법원으로부터 가각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지난 2008년 12월과 지난 5월께 박 전 최고위원에게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경찰에서 “도로공사 측과의 조정에 응하지 말라”는 박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법원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되레 손해를 보게 돼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담배꽂초 조심

화순서 병원 환자 담배 침대 떨어져 화재

광주서 11월에만 담뱃불 화재 13건 발생

10일 새벽 4시20분께 화순군 화순읍 모 병원 병실에서 불이 났으나 당직 간호사가 소화기로 긴급 진화해 침대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소방당국은 입원 환자가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가 침대에 떨어져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늦가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담배꽂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산책로 잔디 및 쓰레기 적치장, 승용차, 화장실 등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1월 들어서만 광주지역에서 13건의 담뱃불 화재가 발생해 634만원의 재산피해를 안겼다.

지난 6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

산구 월계동 응암공원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던진 담배꽂초로 인해 공원 잔디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5일 오전 9시35분께에는 광산구 신창동 주택가 옆 쓰레기 적치장에서 행인의 담배꽂초 투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3일 오후 5시20분께에도 동구 대인동 A노래방 화장실에서 손님이 버린 담배꽂초로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만 광주 관내에서 5건에 달해 소방서 추산 10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가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까지 26건의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반면, 올 들어서는 같은 기간 35건에 달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원침 (8166) 김종두



태진아 부자 협박 혐의

작사가 최희진씨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

검사)은 1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잡은 가을 한파

광주 내남동서 창고살이 50대 저체온증 사망

지난 9일 정오께 김모(57)씨가 광주시 동구 내남동 내지마을회관 창고에서 숨져있는 것을 마을 주민 양모(여·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경찰에서 “점심을 먹자고 불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보니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숨

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년 전 폭우로 인해 김씨의 집이 무너져 마을회관 창고에서 지내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수취기자 yang@kwangju.co.kr

“공무원 취직 시켜줄게”

광주지검, 알선 미끼 3000만원 받은 건설업자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0일 군청 공무원 채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박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27일께 목포시 산정동 한 사무실에서 “군청 고위간부에게 말해 아들을 기능직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전남지역 모 군수 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한 박씨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군청 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토석채취 허가 내줄게”

목포경찰, 청탁비 명목 3300만원 뜯은 30대 구속

목포경찰은 10일 토석채취 허가가 나도록 도와준다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영암에 있는 땅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도록 돕겠다고 속여 또 다른 김모(53)씨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등 명목으

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이려고 다른 공무원에 찍힌 군청 관인을 이용, 토석채취허가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서진룡살롱 사건’ 동료 누이와 결혼

성다발

○198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진룡살롱 살인사건’의 범인 중 한명이었던 박모(50)씨가 10일 서울 동작구 후석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

○박씨는 동료 조직원의 누이였던 장모(53)씨와 이날 오후 3시 성당에서 700여명의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화축을 밝혔으며, 신부는 함께 수감됐던 동생의 면회를 다니면서 박씨와 가까워졌다는 것.

○서진룡살롱 사건은 1986년 8월 14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서진룡살롱에서 탐보과 조직원들이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조직원의 축하연을 벌이다가 진석이파 조직원들의 습격을 받아 4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

○당시 26세였던 박씨는 진석이파 소속으로 사건에 가담했으며, 지난 2006년 출소해 지금은 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성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연합뉴스

대항편입 마무리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2월 1일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	-----------------------------------

김영편입학원

실전트레이닝!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